



## 오 록 도 행복 칼럼

하 승 무

한국장로회신학교 초빙교수·시인

군복무 시절 같은 여단 산하 부대에서 군 중사병으로 함께 근무했던 강원도의 지인에 게서 별안간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최근에 갑작스런 당뇨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것이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무엇보다 몸 전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 속상한 마음에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기독교인인데도 입에 구취가 나서 위장문제라 여기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병을 얻어 하루종일 병실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필자

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천명을 넘어 오십 중반인데 왜 자신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약간의 분노랄까, 막연한 원망이 섞인 그의 전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나는 나름대로 위로를 하였다.

“박 군중!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도 죽을병은 아니잖습니까. 급성 당뇨가 와서 합병증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만성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몸 관리만 잘 하면 모든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라고 말했다.

아마도 이 말에 위로는커녕, 속상해서 전화했다니 ‘감사하고 그래도 다행이니’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상했는지 모를 일이

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니나 다를까 “당뇨 때문에 종합 검진도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의사 말로는 대장은 다른데와는 달리,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아주 높는데 일찍 발견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나에게 “하 군중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기분 나쁜 마음을 가져서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감자가 폭락해서 한 박스 보내줬다고 하였지만 극구 사양했다. 온 나라가 중국발 코로나19 때문에 혼란과 위기에 빠져 마비가 된 듯 한 상황이다. 먹

거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생활 건강 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질병이 전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살아 있는 지혜’를 얻었다. 상황은 위기이지만 위기를 통해서 얻은 지혜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초기 대응은 다소 미흡했지만 이후, 시의적절하게 잘 대처했고 질병 대처 방법의 노후화가 전혀 없는 주요 선진 국가들조차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조치 방안과 방법들을 모델로 삼아 적용하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자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문제는 봄 눈 녹듯 해결될 것이다.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겠다.

## 그래도 봄은 오고 일상은 계속된다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는 봄이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마을을 돌아본다. 우암동 소과마을공동체센터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풍경은 너무나 익숙하다. 사흘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곳이다. 그러던 곳이었지만.

조용하다. 아이들 소리는 이미 떠난 지 오래다. 좁은 골목에 웅기종기 줄서있는 조그마한 화분의 꽃동오리와 옥상에서 흘날리는 낚은 옷가지만 아니면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다.

3월의 달력과 함께 안심마당 한가운데 빛나무가 꽃을 티을 준 비를 하고 있다. 아마도 봄의 전령사들이 흘날리는 꽃비와 함께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19라는 생경한 불청객이 찾아와 사람들이 숨어버렸다. 아니 온통 삶의 소리들을 삼켜 버렸다. 60년은 족히 된 듯한 낡은 시멘트로 만든 이층집은 사람이 떠난 지 오래다. 갈라짐들의 집이 된 것도 같다. 이층에서 갈라지고양이 소리 같아 배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잠시 고양이는 눈을 의식했는지 금방 조그만 틈새

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후 소리가 들린다. “대파 사이사~. 병지 대파” 단했던 문들이 열리고 사람이 나올까. 목을 한껏 내밀어 소리나는 곳으로 눈길을 준다. 앞집 순희 언니만 한 단 쟁겨서 후다닥 집으로 숨어버린다.

다시 마을이 조용해졌다. 센터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 딱히 할 일이 없다. 올 초 세웠던 계획도 코로나사태로 미루어지고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일은 모든 게 정지된 상태다.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골목을 누비며 외쳐 부른다. “△△엄마 뭐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예고, 온종일 누워서 텔레비만 보면 안돼. 마스크하고 옷 따뜻하게 입고 동네 한바퀴 돌아요. 친구한테 전화도 하세요. 너는 아픈데 없나. 열은 없고? 그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하시구요.” 그러곤 따뜻한 눈인사 한번 하고 다시 다른 어르신들의 집으로 향이 된 것도 같다. 이층에서 갈라지고양이 소리 같아 배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잠시 고양이는 눈을 의식했는지 금방 조그만 틈새

주미옥 명예기자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 기온이 상승하면서 풀어진 전선연결 부분의 절연테이프는 다시 감아준다.
-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하는 옥내 전기 배관 손상으로 화재 및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겨울철 동안 전열기의 빈번한 사용으로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새것으로 교체 사용한다.
-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어스)시설을 한다.
-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적색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 전기안전 문 의 :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번호 없이 ☎1588-7500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신고기간**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4개월간 시행)
- 신고대상**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년만 면허 과태료 면제

나 렌트홈 콜센터 (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 남구보건소 ‘코로나 파견팀’ 대구서 보낸 잊지 못할 14일

## 잔인한 3월 건너 평범한 4월을 꿈꾸며

파견 첫날, 보건소 동료들의 눈물과 격정을 뒤로 하고 한 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려 대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며 바라본 대구의 모습은 정적 그 자체였다. ‘잠정 휴업’ 안내글까만 불인 채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점포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무표정한 사람들, 인적을 찾기 어려운 도심의 행한 거리 등 나에게 있어 대구는 항상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던 도시였는데 이런 낯설음은 그간 코로나 사태가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하게 했다. 대한민국 전역이 다 비슷한 형국이지만 대구는 그 어느 곳보다 깊은 적막과 어두운 그늘에 싸여 있었다.

우리가 일손을 도울 대구 북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다. 현업을 뒤로 하고 조건 없이 달려온 자원봉사자들과 파다한 업무로 사무실에서 쫓잡을 자는 직원들을 보며 긴장감과 함께 사명감이 들었다.

처음 대구 파견 지원에 주위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다. 나 또한 ‘미숙한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걱정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심시

일반’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해내며 힘을 합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일팔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파견을 자청했다.

대구에서 우리 팀이 맡은 업무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일이다.

많은는 하루 수 십 명의 양성 확진자가 나오는데 우리 팀은 양성 판정 사실을 제일 먼저 통보하고, 확진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해야 했다. 수화기 너머로 양성 판정을 받은 상대방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동시에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양성 확진임을 통보받았는데도 의외로 덩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생활 수칙을 교육하면서 갑갑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잘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표현처럼 먼저 홍역을 치른 대구는 감염병에 대한 업무분장이 잘 짜여져 있었다. 보건소와 감염병 관리팀 뿐만 아니라 전문야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팀 별(역학조사, 확진자관리, 접촉자관리팀 등) 업무가 세분화, 효율화되어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다.

2주간의 파견근무에서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 깊은 정이었다. 대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지원물품이 연이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나라 전체의 일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부산으로 복귀하기 며칠 전 출근길에서 길모퉁이에 핀 이름모를 봄꽃을 보았다. 길고 차디찬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활짝 핀 들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길 기도한다.



유준경 주무관  
(건강증진과)

## 남구체육회 무료교실 안내

※ 문의 : 남구체육회 ☎644-7330, 612-7330, 622-7330

교실	요일	시간	정원	장소	운영기간	신청기간
장수체육대학 탁구교실	화·목	10 : 00 ~ 11 : 00	15명	유엔탁구장		
장수체육대학 게이트볼교실	월~금	14 : 00 ~ 16 : 00	30명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5. 1. ~ 6. 30.	4. 20. ~ 4. 30. 신청은 마감
장수체육대학그라운드골프교실	월~금	09 : 00 ~ 11 : 00	30명	백운포체육공원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시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생수 및 음료수로 사용된 페트병의 내용물은 버리고, 뚜껑·라벨을 제거한 후 별도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별도 수거함에, 단독주택은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기존 재활용 배출일인 월요일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올 6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 공동주택에 의무시행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방법 예시』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20. 3. 27.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마미랜드 산후조리원	대연동	주방장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1,900,000원 + 합의	051-621-1242
대연드림 어린이집	대연동	승합차 운전원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600,000원	010-5535-3239
정형외과의원	대연동	간호조무사	1명	2020. 3. 27. ~ 채용시	연봉 23,500,000원	051-628-1997
임해누리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오륙도요양병원)	용호동	간호조무사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714-7015
SMOTORS 판금부	감만동	수입차 판금 A급 정비원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3,000,000원	051-752-0172
신선육기공	용호동	정육원 (경력, 신입)	2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2,500,000원	051-819-1677
업톤(UPTON)	용호동	웹 디자이너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1,795,310원	051-626-7371
사랑재가 노인복지센터	대연동	목욕 요양 보호사	4명	2020. 3. 27. ~ 채용시	시급 15,000원	051-610-0625
소울(Soul)	대연동	제품 디자이너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32-9005
(여)라임인테크 (장애인인 채용)	문현동	총무 및 일반사무원	1명	2020. 3. 27.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2-552-191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Fax ☎607-4349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